

민주당 내 제주특별법 개정 전담기구 출범

제주·세종균형발전추진단 13일 발족식 김영배 단장 “도민 뜻 받들어 개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 분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내 기구가 출범했다.

민주당 제주·세종균형발전추진단(이하 제주·세종추진단)은 13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제주·세종추진단은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자치입법, 자치·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제주특별법에 반영할 과제를 추진 뒤 개정에 나서게 된다.

제주·세종추진단장은 김영배 의원이 맡으며, 위원으로 송재호·강준현 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우원식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제주도는 국가

균형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주와 세종이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에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배 제주·세종추진단장은 “행정시장 직선제와 교육의원 제도 개선 등 여러 현안들이 제주에 있다”며 “도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주특별법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개선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해결을 요구했다.

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제주특별법과 국제자유도시법을 하나로 묶은 형태이다 보니 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법을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고 분법을 요구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 발족식을 가진데 이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상민기자

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출범 후 모든 권한 도지사에게 집중됐다”면서 “행정시장 직선제 혹은 (도지사 선거 출마자가 행정시장을 사전에 지명하는)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서도 “교육의원 제도가 출마 자격을 교육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이 교육의원 선거에 나설 수 없고,

(이런 출마 자격 제한으로) 한 번 당선된 의원은 (별무리 없이) 3~4선을 하고 있다. 법을 개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수요가 많다”며 “내년 선거 일정에 차질 없이 개정 수요를 특별법에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그물식 통발어구 일부 허용 제주도, 제한조건 고시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7일 연안통발어업 시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 조업을 일부 허용하는 ‘연안어업허가 및 제한조건’을 고시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마을어장과 연안어장의 무분별한 수산자원 포획을 막기 위해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제한하고, 플라스틱 통발어구를 이용한 조업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제주도 본도로부터 5500m 이의 해역에서 그물식 통발을 사용하여 조업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관계 연구기관의 검토와 어업인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도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물식 통발어구 사용을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전에는 ‘연안통발어업은 그물식 통발을 사용하여 조업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했으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틀이 고정된 그물식 통발어구 형태의 사용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다만 접이 가능한 그물식 통발 사용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이 제한된다. 고대모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후 정부와 2공항 논의”

김영배 의원 “제주도민 의견 반영 전제로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월2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끝나면 제2공항 문제를 놓고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김영배 민주당 국회의원은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실에서 열린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 발족 기자간담회에서 제2공항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원만히 잘 돼서 의사 결정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다”며 “전당 대회 이후 (제2공항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정상 추진 의견을 정부와 청와대에 공식 제출한 것에 대해선 “한쪽 편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 당황스럽다”면서 “(제2공항 건설문자 추진 과정에서) 합의된 원칙이 있는데 (이런) 합의와는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전체 도민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우세했음에도 원 지사가 찬성 의견이 높았던 성산지역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정상 추진 의견을 내 부적절했다는 것이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이날 김 의원은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제2공항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간담회에 참석한 송재호 의원은 제2공항 건설사업이 무산돼도 공항 인프라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제2공항 건설사업을 접으면 공항 인프라 확충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공항 인프라 확충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어업인은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에 따른 소득 안정을,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는 적극적인 어촌 진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만 55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넘기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 직불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강대해기자

후계 어업인 어촌계 가입조건 완화된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의 ‘수산업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에 따라 후계 어업인의 어촌계 가입 요건이 완화됐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어촌계 가입을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야 했지만, 최근 시행령 개정으로 1년 이내 조합원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후계 어업인이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많은 후계 어업인들이 고령 어업인들의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받을 수

문 대통령 “공시가격 지자체-부처 협의”

어제 국무회의 주제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부처의 충분한 소통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무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청취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은 오시장이 이전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최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한 사항이다. 오 시장은 최근 보궐 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취임한 뒤 공시가격 제도개선 행보에 나섰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오 시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

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과 관계 장관님들의 관심과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향과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전국 지자체의 통일된 요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변 장관은 “지금도 공시가격 결정 시 지자체와 협의하고 있다. 다만 2019년 9월 시·도별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내용의 공시지가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서울-경기-제주만 찬성하고 다른 지자체는 모두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토론을 경청한 문 대통령은 “서울시장께서 제안하고 관계 부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요약된 제안과 짧은 답변만으로 충분히 소통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와 관계 부처가 국무회의 이후에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용암해수+버섯·메밀로 새 로컬푸드 도전 제주테크노파크-보롬왓 제품개발·마케팅 협약

제주특산 용암해수와 버섯, 메밀을 활용한 새로운 로컬푸드가 나올 전망이다.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와 영농조합법인 보롬왓은 지난 12일 서귀포시 성읍리에 위치한 보롬왓에서 ‘제주 용암해수 활용제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암해수센터와 보롬왓은 제주 용암해수 원료 확보 및 용암해수 활용한 제품 개발, 제품생산 등 용암해수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 공동 마케팅 등 제주용암해수 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 교류 및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용암해수 산업화에 앞장서는

용암해수센터와 제주의 6차산업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보롬왓의 장점을 바탕으로 제주의 천연자원과 제주 6차산업을 접목하여 ‘제주다움’이 살아 있는 대표(시그니처) 사업과 제품개발을 통해 제주형 미래 융복합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 용암해수를 활용하여 메밀 시범재배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보롬왓에서는 용암해수센터와 기술적 제휴를 통해 천연 칼슘, 마그네슘 등의 유용 미네랄과 영양염류가 풍부한 용암해수와 보롬왓에서 재배한 버섯, 메밀 등을 접목한 트러플 미네랄 소금, 메밀 소주 등 다양한 제품개발을 본격화해 나갈 예정이다. 고대모기자

金海金氏三賢派冀孫公濟州宗親會
墓祭奉行 및 定期總會 案内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을 맞아 제주종친회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1년도 입도조 묘제봉행 및 정기총회를 지난 3월 31일 ‘정기감사’ 및 회장단회의(비대면) 결정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전년처럼 다음과 같이 임원님들만 모여 간단히 진행하고자 합니다. 종친님들께서는 이점 널리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일 사: 2021년 4월 18일(음 3/7) 일요일 오전 11시 -
○장 소: 제주시 해안동 587-3번지. 「김해김씨 삼현파 문민공계 기손 후예 묘원」

*참석대상: 종친회 임원(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 재무, 이사)
*제 1부: 묘제봉행
*제 2부: 정기총회(심의 안건)
· 2020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안) 승인의 건
· 기타사항 등

*코로나 19 방역수칙 안내 ⇒ 마스크 필히 착용, 거리두기 실천, 감기,기침,발열 환자 참석 불가

*제 관: 초현관(장파) 현부회장 김 두 욱 (임도 13세손)
아현관(중파) 현부회장 김 선 돈 (임도 13세손)
중현관(말파) 현부회장 김 상 숙 (임도 12세손)

*축 관: (중파) 이사 김 동 립 (임도 13세손)
*진 행: 재 무 이사 김 호 영 (임도 15세손)

※ 연락처: 회 장(김정돈): 010-8662-4230, 총무이사(김우경): 010-2671-4900, 재무이사(김호영): 010-8714-9525

김해김씨 삼현파 기손공 제주종친회장 김정돈

전주이씨계성군파 제주특별자치도종친회
이사회 개최

辛丑年 새봄을 맞이하여 종친 제위의 건승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도 전주이씨계성군파 제주특별 자치도종친회 정기총회를 부득이하게 개최할 수 없어서 다음과 같이 이사회에 위임해서 총회결의로 가름하고자 하오니, 종친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일 시 : 2021년 4월 17일(토) 오전 11시
○ 장 소 : 제주계성회관 (제주시 연신로 17)
○ 참석대상 : 전주이씨 계성군파 제주도종친회 이사
○ 회의안건 : - 2020년도 사업 및 결산 승인
- 2021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 임원개선

○ 기 타

■연락처 : 회관 (064)724-0102 사무국장 현숙 (010)6606-3779
※ 방역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마스크 착용해야하며, 식사 제공은 할 수 없음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全州李氏桂城君派濟州特別自治道宗親會
會長 李 哲 憲